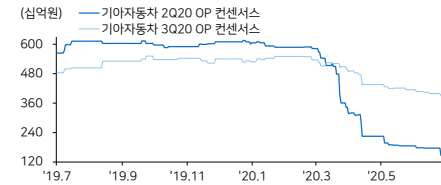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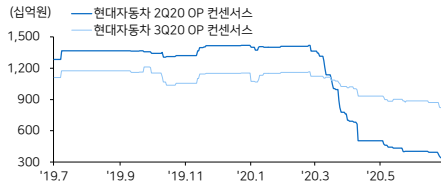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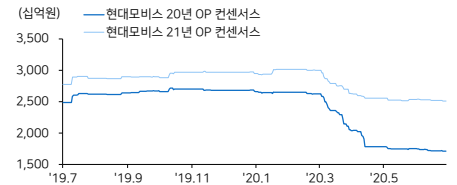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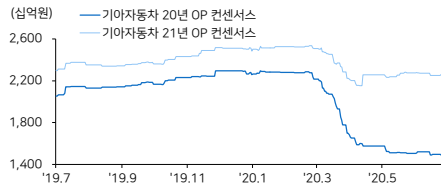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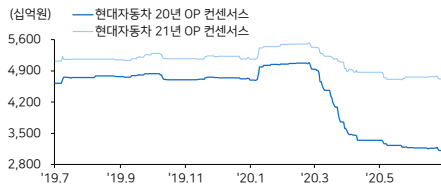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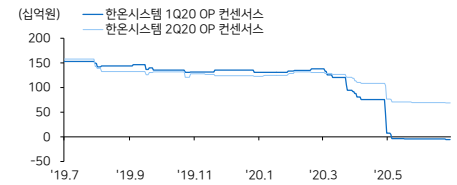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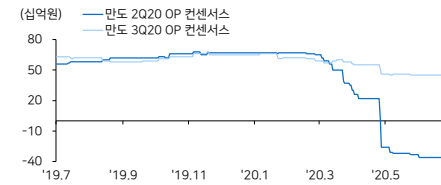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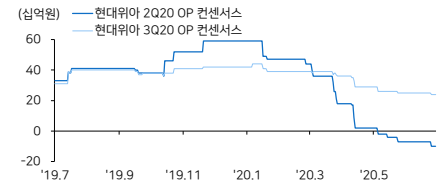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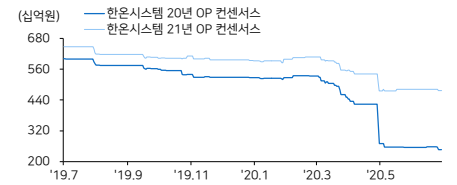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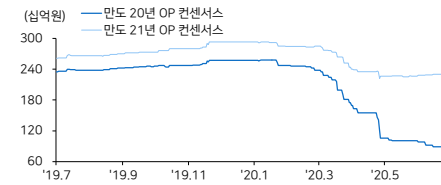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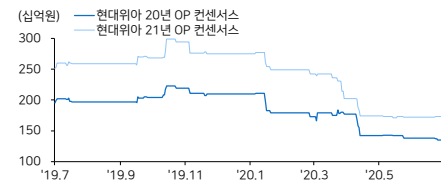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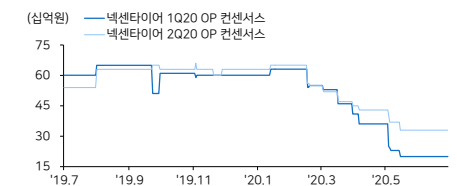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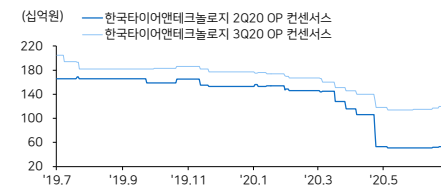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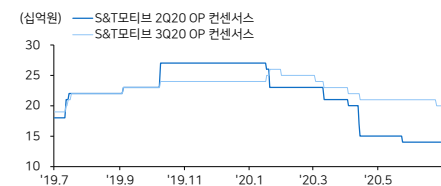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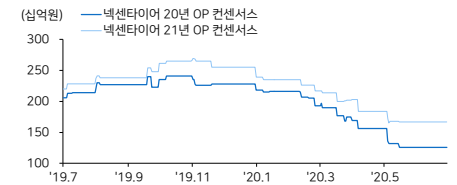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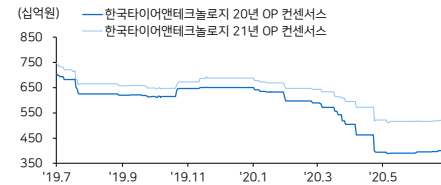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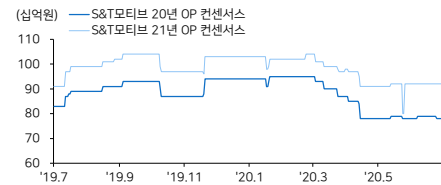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그린 뉴딜 기회잡은 현대차...재계 리더 부상하는 정의선 (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5년 내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기업으로 눈도장을 찍음.
<https://bit.ly/2CboeS3>

현대차, 상용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 전걸음 (EBN)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가스공사와 LNG 기반 용·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상용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에 나섬. 현대차그룹과 가스공사는 '수소 사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https://bit.ly/3fv5JcD>

한국 자동차 생산, 7위에서 4위로 반등 (IT조선)

우리나라가 5년 만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 순위 '톱5'에 재진입.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국내 생산대수가 두자릿수대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옴.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3024.html

중국자동차공업협회, 6월 자동차 생산량 232만5000대로 6.3% 증가 (엔아이엔뉴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6월 자동차 생산량은 232만5000대로 전월 218만7000대 대비 6.3% 증가.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2.5% 증가. 섀도우 및 봉쇄조치로 인해 굳게 닫혔던 소비력이 폭발하면서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
<https://bit.ly/3iZhiLz>

현대차 인도에 새 투싼 내놔, 김선섭 코로나19 돌고 'V자반등' 절실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인도를 겨냥해 새 투싼을 내놓음. 인도는 SUV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김선섭 현대차 인도본부장은 현대차가 판매량을 차츰 회복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판매의 'V자 반등'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힘.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7269

테슬라 시승하고 와이파이 끊고...현대차 노조가 달라졌다 (서울경제)

현대차 노동조합이 자체 행사에서 테슬라 차량 시승행사를 열어 주목됨. 업계에서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품질 리스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https://bit.ly/307Lc04>

미, 한국산 타이어 등 반덤핑 '조사 계속' 결정 (국민일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 US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단계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힘.
<https://bit.ly/32gKabZ>

독일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에 '허위' 판결 (연합뉴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없이 여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https://bit.ly/2CuSqdH>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